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12월 1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요한계시록 4장 1-11절

설교제목 : “예배”

예배는 보통 공 예배와 삶의 예배로 구분합니다. 공 예배는 교회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공적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는 우리가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은 주로 공적 예배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천상의 예배에 관한 환상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적예배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극심한 박해로 고통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잔인하게 목숨까지 잃게 되는 정말적인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해도 삶의 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린 하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사망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열린 하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늘에 열린 문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리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실제로 요한이 천상으로 올라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이 그 자리에서 천상의 황홀경에 빠져든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이 땅에서 천상의 황홀경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땅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황홀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올라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자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배는 예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주님의 초정을 받아 참여하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1절)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단순히 미래에 자연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는 필연적이고 객관적인 미래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되어질 그림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요한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루 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았습니다. 이 백성에게 무슨 메시지가 필요했겠습니까? 고난의 끝을 보는 것입니다. 살인적인 현실을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종말론적인 완성의 그림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종말론적 시각에서 예배는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모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임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결과를 확실하게 알면 아무리 그 과정이 험난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우리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현재의 자리에서 마지막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궁극적으로 일어날 마지막의 완성된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2절을 봅시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목격한 것이 보좌입니다.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좌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반복 기법은 강조의 목적을 두고 있기에 지금 성경은 보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가 무엇입니까?**

‘보좌’는 단순한 의자가 아닌 최고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당시 땅에서 최고의 권좌는 로마 황제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권좌에 있는 로마황제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로마황제의 보좌보다 더 높은 보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요한을 이끄신 이유는 진정한 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로마 황제가 실제적인 권력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이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귀속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마침내 하나님 중심으로 성취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보좌 앞에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6-11절에 보면,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십사 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전체, 천상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십사 장로들이 자기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관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잘했다고 주신 씩씩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나의 공로와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과 은혜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썼던 면류관을 벗어서 그 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에 다시금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합당한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반드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은 무슨 고백입니까? 감사의 고백이고,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가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 삶의 참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자리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어디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누구의 손에 승리의 돌이 쥐어지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참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온전한 예배자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난 천상의 예배를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2) 예배 시간에 왜 예물을 준비해야하는지를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위해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